

2 2024 VOL. 33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현대차와 함께하는 2024 새해의 시작 특별 구매 혜택을 지금 만나보세요

특별 금융 프로그램*

50%*
유예할부

3개월*
거치 할부

초저금리*
할부

*특정 모델 또는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13-1696-2061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월간 한인뉴스 2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이야기:
2024년도 JIKS 초등졸업식
(2024. 1. 11)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8

한인회, ‘2024년도 이사회 총회’ 열어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12

대사관, ‘2024년 신년인사회’ 열어

16

한인회 제1차 회장단회의

17

코참, ‘2024 상공의 날’ 열어



contents

2024. 2. 통권 332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4

[여기가 맛집]
SHU GUO YIN XIANG
〈황지영〉

28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6]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2

[서상영의 한방칼럼 10]
다이어트1

36

[행복에세이]
종이꽃 (부견빌레아) 〈김준규〉

38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팝 아트를 소개합니다
〈김별님〉

42

수카르노의 꿈을 찾아 걷다
〈한인니문화연구원〉

44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신년회

45

KIM아카데미배
인니전국여성골프대회

46

〈한인뉴스〉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아카이브로 〈조연숙〉

49

[JIKS 소식]
제25회 고교과정 졸업식

50

한류는 물결이다 〈이태복〉

52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2 〈신성철〉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59

[디카시 풍경]
통도 홍매 〈김주명〉

60

UNAS에 열린 초청강연
경복궁이야기
〈한인니문화연구원〉

62

대한민국은 왜 기록유산 강국일까?
〈홍덕용〉

64

덕수궁이 품은 고종과 대한제국
이야기 〈박승헌〉

68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1986년 2월 25일, 성난 필리핀 군중은 21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을 붕괴시켰다. 당시 28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쫓겨났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일명 봉봉)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돼 그해 6월 말부터 필리핀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다. 아버지가 피플파워로 축출된 지 36년 만에 필리핀 대통령에 올랐다.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8년 민주화 운동에 이은 폭동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한편 수하르토가 축출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수하르토 가문은 정치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피플파워로 독재 정권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했지만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하야하면서 수하르토 가문의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수하르토 이후 개혁시대(Era Reformasi) 초기에 강한 반(反) 수하르토 정서로 인해 수하르토의 자녀들은 즉시 수하르토의 정치 기반인 골카르당 지도부에서 추방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수하르토 가문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회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정치전문가 마젤로 라이노 웨니스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모두 민주적 틀 내에서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다고 보았다.

마젤로는 동남아시아 정치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우펜(Andras Ufen)을 인용, 이미 2006년에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필리핀화’(Philippinization)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필리핀화는 당내 권위주의 강화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부상, 유권자 매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정치 기반의 부족, 약한 정당 충성도, 새로운 정치가문의 등장 등을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2024년 대선 후보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조합을 예로 들었다.

마젤로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6년 수하르토의 권위주의적 통치 이전에는 정당 메커니즘이 충성심과 이념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국민당(PNI)과 같은 민족주의자, 이슬람 정당 마슈미(Masyumi)와 같은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공산당(PKI) 소속의 사회주의자 등 정치적 이념이 분명하게 구분됐다.

수카르노 집권기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은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압과 억압을 받게 되면서 행정부와 군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자,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정권의 반대자들도 반공 숙청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즉,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정권의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충성심을 억압하면서 통제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1998년 수하르토의 몰락과 B.J. 하비비에게 권력 이양으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개혁과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마르코스 이후 처음으로 1987년 민주적인 선거를 치른 필리핀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는 2004년에야 첫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선거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협의회(MPR)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인도네시아 정치는 필리핀의 정당체제와 유사해졌다. 수많은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정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이로 인해 정당 충성도가 감소하고 정당정치 기반이 약화되었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와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제 정당의 출현은 의미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젤로는 평가했다. 일관성 있는 국정에 관한 논의는 줄어들고 신선한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발굴은 어렵게 됐고 거래정치가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과거의 권위주의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이름을 지닌 현 필리핀 대통령과 수하르토 시대의 전직 육군 장성이었던 프라보워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마젤로는 프라보워와 기브란의 파트너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수년 간의 합의의 결과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연합의 사례는 본질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상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최근 태국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은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했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부와 군주제가 지원하는 의회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았다.

마젤로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왕조가 부상한 것을 인도네시아 정당정치가 과두제(寡頭制, oligarchy) 하에서 부패와 친족주의가 만연하는 필리핀 정치처럼 되는 “필리핀화”의 징후로 보고 있다. (끝)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2024년도 이사회 정기총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1월 30일, 셰라톤 호텔(Sheraton Grand Jakarta Gandaria City Hotel)에서 한인회의 명예회장, 명예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재적임원 156명 중 82명 참석(위임장 포함))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회장인사, 2023년 한인회 주요활동과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선거관리규정 제정 보고 순으로 진행하였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한인회에서는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정을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며 한인회 임원의 참여와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좌로부터 손한평 수석부회장, 박재한 회장, 김종현 수석부회장

올해 한인회에서는 전반기에 작년 인니어본으로 출간했던 ‘한-인니 우정의 50년 여정’을 재정비하여 한인의 관점에서 확장된 시각의 한글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어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들이 탐방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수모워노(Sumowono)를 비롯한 암바라와 일대를 미래세대인 한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박회장은 9월 20일 ‘한인의 날’에는 인도네시아 한인으로서의 연대감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이웃들과 어울리는 문화행사를 통한 축제를 계획하는 등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회의 중 임원들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등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식전 행사로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인 심 뇌혈관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K-LAB 김진연 책임의 ‘심장이 말해요’ 강연을 들었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총회가 마무리되었다.



김진연 책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PMK No. 172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 제6장 관계의 조정 (제 40조)
- 제7장 공동승인 절차
 -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 (제 52조)
 -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 제8장 양도가격 계약
 -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67조)
 -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 (제 68조~70조)
 -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 정상가격원칙 (ALP) : 팔길이 원칙이란 ? Arm’ s length principle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Arm’ 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 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끝>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2024년 신년인사회’ 열려



이상덕 대사, 이장근 아세안대사, 박재한 회장



지난 1월 3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24년 새해를 맞아 한인 사회 주요 인사와 대사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올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우리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국가발전 목표를 지원하면서 신정부와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리 진출 기업 및 동포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장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공식적인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올해는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를 향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인 2023년에 한인회는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체육 행사를 개최했고, 인도네시아어판 기념 도서 Merajut Persahabatan Memupuk Kepercayaan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한-인니 수교 50년사)를 출간했다”며 “올해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추모비 건립의 마무리 작업과 미래 세대인 한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9월 20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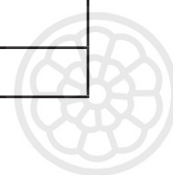
이날 표창장 전수 및 시상식도 열렸다. 이상덕 대사는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에 사공경과 재외 동포문학상에 권영경 수필 부문 가작, 김형석 체험수기 부문 가작 및 2023년도 주인도네시아 대사표창(38명) 등을 수상자들에게 전달·수여했다.





2023년 연말 대대표창자 (총 38명)

성명	소속 및 직위
고성우	바탐한인회 총무
구현진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MK태권도장 (관장)
권미영	인도네시아 EPS센터 차장
권순한	즈빠라한인회 감사
김미정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소속 한글학교 교사
김민규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부회장(재무간사)
김민화	족자 한글학교 교사
김우영	메단한인회 부회장
김원기	중부자바한인회 부회장
김은자	중부자바한인회 / PT.SAMKYUNG JAYA GARMENT 법인장
김효중	한인니디지털정부협력센터(DGCC) 센터장
노병진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지회차세대 부대표
박세원	한국수자원공사
박진철	IBK 기업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부장
장미애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지회 이사
장방식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국악사랑(단장)
전청균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기술부장
제경중	땅그랑 한인회 고문
조연숙	한인언론인협의회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성명	소속 및 직위
송예선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지휘 겸 단장
심선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안연진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부회장
양신영	발리세움한글학교 교사
윤희섭	재인니외식업협의회 부회장
이건식	현대자동차 아세안권역 대외협력팀
이수한	재인니찌까랑한인회 이사
이승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승현	PT. CMS CHEMICAL INDONESIA 이사
이은주	한인청년회 운영위원
이승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지사장
이철웅	대흥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혜자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연구원
이효연	KOTR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
임종순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홍석영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편집장
Dr. Djarot Wibowo	Head of Medical and Health Division of East Kalimantan Regional Police (Kombes, 대한민국 총경급)
Maulida Ibbaty Qonita	중부자바한인회
Rendra Z.Idris	소속: Otoritas Jasa Keuangan (OJK) /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2024 제 1차 회장단회의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4년 1월 16일(목) 오후 4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정관에 따라 2024 제 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월 30일(화)에 열릴 정기총회에서의 이사회상정안건을 확정하고 한인회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 등에 관한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코참, ‘2024 상공인의 날’ 열어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가 2024년 신년회를 겸한 ‘상공인의 날’ 행사를 1월 25일, 자카르타 스다유 인도 골프장(Sedayu Indo Golf, PIK)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재인니한인회 박재한 회장 등의 내외빈과 회원사 임원 16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 1부 골프 행사, 2부 만찬과 자카르타 한인무용단의 인도 북 공연, 초대가수 STARBE(현지 K-POP걸 그룹)의 무대,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현 코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녹록지 않은 기업 상황에도 묵묵히 이겨내고 가는 자리인 만큼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회원사들을 환영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코참은 그 중심에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시장상황이나 투자 정보 등을 정확하

고 신속히 제공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과 “최근 다양하게 진출하는 대기업과 이미 진출하여 성공한 기존 기업과 잘 어울려 인니 정부에 하나된 큰 목소리를 내고, 게이트웨이 역할 및 CSR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대사는 축사에서 “대사관의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 개정으로 합리적인 항공료를 내고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코참과 한인회 등과 협력하여 다각적 채널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 있는 해외 경제단체로 현재 26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코참은 지난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위원회로 출발, 확대 개편하고 2022년 7월 제6대 코참이 출범하여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 사회>

신태용 “인도네시아, 더 이상 뺨축구는 없다” “속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꺾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속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뺨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킥로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쏘는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꺾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언론 레뿌블리카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카르타 봉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들라똘올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mainnya bagus sekali)라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값진 승리이다”라며,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조 3위를 통한 16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이라크(63위),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으며, 예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제봉(Kecebong 올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캄쁘렛(Kampret 박쥐, 프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적대감, 종파주의, 편협함,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테스는 2024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흑색 선전,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gemoy(알미운)와 slepet(누군가에게 사물을 던지는 것) 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2022년 12월,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수라카르파 시장이 프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코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고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인 간자르 뿌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웨단-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몰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총재,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땡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뿌라노위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브밍라카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반 결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베트남 및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속이 아닌 마루스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스리물야니 재무부장관, 아리핀 마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떼펜 마스두키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관,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 \pm 1\%$ 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주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까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가 크지만,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금융,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바 및 스파 등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타 깎다니 회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800만명 유치했고,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명)와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인니, 비즈니스·관광 목적 5년 복수입국비자 시행

최대 60일 체류... 온라인 통해 신청 결제 가능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골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인센티브, 전시 행사 등 참가자, 관광/여행,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물품구매,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000,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사진, 미화 2,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기관 및 가족의 초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활동범위, 신청 요건,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불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데일리
인도네시아

—여기가 맛집!—

SHU GUO YIN XIANG

Lokasari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겨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겨울을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2월에는 민족의 명절 설도 있죠! “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낫설다’의 어근인 ‘설다’에서 온 것. 둘째,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부르던 말인 ‘선날’이 ‘설날’로 바뀐 것. 셋째, ‘자중하고 근신한다’라는 의미의 옛말 ‘썰다’에서 온 것. 셋 중 첫 번째 유래가 가장 설득력 있고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새로운 날인 설날! 그런 설을 맞아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연초 연락 드리지 못했거나, 평소 자주 찾아 뵙지 못했던 분들께 연락 드려 식사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 명에서 둘러앉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중국식 샤브샤브 휘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개 드릴 식당은 Shu Guo Yin Xiang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휘귀 프랜차이즈인데요. 하이드라오에 비하면 육수가 더 짭고 깊은 맛이 있어서 저는 Shu Guo Yin Xiang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Plaza Indonesia, Senayan City, Pluit, Lokasari, PIK, Kelapa

Gading, Sunter 등 지점이 많지만, 지점 별로 다 가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본점인 Lokasari, Pluit, PIK, Sunter이 조금 더 육수가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화교들이 많아 돼지 육수 사용이 용이해서가 아닐지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점들도 맛있으니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의 중국식 인테리어가 돋보이나 각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보시는 눈의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휘귀는 중국 북경요리와 사천요리의 종류 중 하나로 소고기나 양고기를 국물에 담가 익혀 먹는 샤브샤브식 요리입니다. 중국에서 외식 메뉴로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중국의 춘절과 같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자주 먹기도 합니다. 크게 북방식인 북경스타일과 남방식인 사천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경식 휘귀는 몽골 제국의 정복전쟁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쿠빌라이 칸 치세의 몽골 제국이 남송을 정복할 당시 칸이 요리사에게 폭 삶은 양고기 요리를 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송 군들이 들이닥쳐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양고기를 제대로 삶을 여유가 부족해서 요리사는 양고기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빠르게 데쳐 양념에 찍어 먹도록 고안했다고 합니다. 칸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 요리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여 요리사에게 똑같은 양고기 요리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사천식 휘귀는 쓰촨성 지역 항구에서 고기를 팔던 상인이 당시에는 팔 수 없었던 내장과 특수부위 등 부속물을 가져와 매운 국물에 담가 익혀 먹던 것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냄비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먹었는데, 종종 개인이 가져온 고기가 서로 섞이다 보니 다툼이 벌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물 정(井) 자로 생긴 칸막이를 만들어 구역을 나누게 했습니다. 가장 불이 강한 가운데는 같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변형을 거쳐 지금의 휘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휘귀를 먹으러 가면 먼저, 탕을 고르게 되죠.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고기나 야채로 우린 백탕, 백탕 베이스에 두반장과 초피, 고추기름이 들어간 홍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식당에서 항상 3가지 탕 Combination 3 Flavors Soup (188,000 루피아 ++)을 선택해서 먹는데요. 홍탕 Sichuan Mala Soup, 돼지 육수인 Special Pork Bone Soup, 토마토 탕 Tomato Soup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홍탕은 맵기를 3단계 조절 가능해서 매운 것을 잘 드시는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도 조금 매운 편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동반하신다면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탕의 종류는 치킨 베이스, 버섯 베이스, 돼지 베이스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돼지 베이스에 삼겹살을 추가하여 오래 우려먹다 보면, 마지막에 육수에서 한국의 그리운 돼지 국밥의 맛을 살짝 느낄 수가 있어서 돼지 베이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탕은 토마토 탕인데요. 이 토마토탕 도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입니다. 묽은 토마토 파스타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토마토 탕도 홍탕과 백탕과 함께 드시면 질리지 않고 휘귀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식당만의 용머리가 달린 멋진 휘귀냄비도 아주 고급스럽고 인상 깊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채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배추 Sawi Putih (32,000 루피아 ++) 또는 청경채 Pak Choy (32,000 루피아 ++)를 시키는 편입니다. 시금치 Pocay (38,000 루피아 ++)도 살짝 데쳐 먹으니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여러 야채를 조금씩 다 드셔 보고 싶으시다 하면 Mixed Vegetable (88,000루피아 ++)를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고르시고, 여러 가지 Mixed Mushroom (108,000 루피아 ++)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종류와 부위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 추가도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굳이 추천해 드리자면, 넓은 중국 당면인 Mie Ubi (42,000 루피아 ++) 추천 드립니다. 면에 수프가 잘 흡수되어 쫄득하고 국물 맛을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국 당면을 선택합니다. 그 이외에 추천드릴 재료는 완자류인데요. 새우완자인 Fresh Shrimp Meatball (S: 55,000 루피아 ++, B: 72,000 루피아 ++)입니다. 해물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다면 새우 완자 추가해 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버섯 치즈볼 Mushroom Prok Cheese Ball (S: 62,000 루피아 ++, B: 78,000 루피아 ++) 추천 드립니다. 안에 쭈욱 늘어나는 짭조름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 어린이와 동반하신다면 이 재료 꼭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휘귀에서 소스가 빠질 수 없죠. 이 또한 취향에 따라 제조하실 수 있지만, 처음이라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땅콩장 + 참기름 + 다진 마늘 + 고추 + 다진 파 + 땅콩 가루 + 고춧가루 + 굴 소스 + 치킨 파우더 조금 이렇게 조합하신다면 무난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생마늘을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진 마늘 대신에 마늘 플레이크를 첨가해도 괜찮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향수병이 무더져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은 한국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카르타에서 또 다른 나의 가족들인 소중한 지인들과 만나 둘러앉아 휘귀 먹으며 명절 분위기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3월에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 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당 정보 : <Shu Guo Yin Xiang - Lokasari>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2:00- 오후22:00

주소 : Komp THR Lokasari Blok B

Jl. Raya Mangga Besar No.8, RT.6/RW.2,
Tangki, Kec. Taman Sari, Jakarta Barat,
Jakarta 35132

※ Google 참고



2024 시사상식



1. 피크 코리아

‘피크 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피크 차이나’에서 파생된 말로 중국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며 2022년 중국의 출생률과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에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개념이다.

2. 디지털 휴먼

디지털 휴먼은 AI 휴먼, 버추얼 휴먼 등으로도 불리며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간을 의미한다. 디지털 휴먼은 잘 알려진 딥페이크(deep-fake) 기술 또는 다른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만들어진다는. 보통 가상의 3D 모델링으로 ‘휴먼’의 모양새를 만들고 성우 또는 학습된 목소리를 합성해 디지털 휴먼을 완성하는 식이다.

3. 디지털 이민

‘디지털 이민’이란, OTT나 동영상 플랫폼 이용 시 국내보다 요금이 싼 다른 나라로 우회 가입하는 방식을 ‘이민’에 빗대어 말하는 신조어다. 국내 이용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계정을 탈퇴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국가 계정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민을 떠나는 것에 비유해 ‘디지털 이민’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4. 하운드

‘하운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동적로봇제어설계연구실(DRCD) 박해원 교수팀이 제작한 사족 보행 로봇으로, 지난해 5월

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주최한 ‘로봇공학 및 자동화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RA)’에서 발표된 바 있다.

5. 오늘의 화석상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 나라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International)가 총회기간 기후 협상 진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라들에게 1~3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1999년부터 수여를 했으며 한국이 이 상을 받은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6. 쿠팡효과

‘쿠팡효과’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냉각은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금융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서로 다른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

7. 농민수당

‘농민수당’이란 지자체에서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매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농민의 기본권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선순환 구조에도움을 준다.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의 농업정책이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디폰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비장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하명꾸부위노 3세는 네덜란드 지방총독과 귀족들이 다가오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들을 맞았고 무흐타하르는 그날로 뜨갈레쵸에 돌아왔습니다. 폐위된 할아버지가 유폐된 전각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어 만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경직된 왕궁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는 왕국이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곱씹었습니다.

‘힘 없는 왕국은 철저히 짓밟히다가 결국 멸망할 뿐이다. 싸우기 위해선 적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왕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힘을 키우려면, 먼저 이 왕국의 구석구석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의 선택은 이슬람 사회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연구자들은 공부를 마치면 포교활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 지방으로 떠돌곤 했는데 무스타하르는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독자 술탄국은 물론 자바땅 전역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11년 영국군이 자바에 들어와 네덜란드 점령지를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 본국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에 합병되는 바람에 더 이상 해외 식민지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 예기치 않았던 사변을 맞아 네덜란드 총독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영국에게 식민지의 모든 권리를 이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원래 네덜란드군 장군이었던 댄덜스 총독은 유럽으로 돌아가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프랑스 나폴레옹군의 동부전선 사령관이 됩니다. 댄덜스는 지옥에 떨어져도 살아돌아올 만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게서 영국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동인도에 힘의 공백기가 찾아오자 연금되어 있던 하명꾸부위노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가두어 둘 네덜란드군이 끄라톤 궁전에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폐되어 있던 전각 앞에 무장을 갖추고 나선 하명꾸부위노 2세는 거기 모여든 자신의 아들 하명꾸부위노 3세를 위시한 신료들과 군인들에게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누레쵸, 그 놈을 잡아오너라!”

외세와 결탁한 적폐의 숙청작업은 당연히 술탄과 덴탈스 사이에서 끝없이 불화의 불씨를 제공했던 다누레쵸 2세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실각시키는 것만으로는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전횡과 방자함을 상쇄하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다누레쵸라고 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영국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서는 지금까지 네덜란드에게 그래 왔듯이 이제부터 영국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 여전히 족자 술탄국의 재상으로서 평평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끄라톤 궁 앞의 텅 빈 브레더부르크 요새에서 환영식을 준비하며 영국군을 기다리는 정성을 보였고 영국군이 이미 진주한 멀리 바타비아에도 인편으로 선물

을 보내며 영국 편에 줄을 서던 중이었습니다. 그 날 아침 그는 궁전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영국과 이미 모든 거래를 끝내 놓았다고 큰소리를 칠 요량으로 끄라톤 궁전에 들어서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부기스(Bugis)족 경비부대의 날카로운 창 끝이었습니다. 포박당한 다누레쵸 2세는 시티힝길(Siti-hinggil) 대전의 단 위에 하명꾸부워노 2세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제서야 자신이 죽을 곳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금이 저려 대전 초입에서부터 엉거주춤 앉은 채 경비병들에게 질질 끌려 들어왔고 오줌과 똥까지 지려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술탄 전하! 제가 그동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코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옵소서!”



시티힝길 대전 (Siti Hinggil Ler Kraton Yogya)
(출처 - http://krjogja.com/web/news/read/29086/Siti_Hinggil_Ler_dari_Pelantikan_Soekarno_Hingga_Peresmian_UGM)



시티히길 대전 (출처 - <https://destinasiwisataadomestik.blogspot.com/2016/05/kompleks-keraton-jogjakarta.html>)

다누레조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하명꾸부위노 2세는 말없이 왕좌에 앉아 신료들이 속속 대전에 모여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료들 중 많은 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 1년 동안 다누레조의 위세를 업고서 마치 자기 세상이라도 온 듯 끄라톤을 어지럽혔던 그의 친인척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대전에는 모든 왕자들과 왕족들, 귀족들까지 도착했고 뜨갈레조에서 불려온 무흐타하르 역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명꾸부위노 2세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왕국과 정사를 농단한 자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다. 다누레조, 저 자의 악행은 뼈마디 하나하나를 자근자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으나 오늘 저 자의 목을 베어 무너진 왕국의 기장을 다시 세우겠노라!”

그와 동시에 건장한 부기스 무사가 장검을 들고

나와 살려달라 울부짖는 다누레조의 목을 단칼에 날려 버렸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는 대전의 천장에 닿을 듯 튀어올랐다가 바닥을 굴러 대전 밖으로 떨어졌고 목을 잃은 그의 몸은 통나무처럼 대전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자들은 다누레조 저자와 함께 국사를 농단한 자들이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주살하라!”

끄라톤 궁전의 외곽을 지키던 발리(Bali) 경비대는 이 명령에 따라 척살할 자들의 명단을 나누어 받고서 곧바로 말을 달려 나갔습니다. 숙청작업은 그후로도 한동안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끄라톤 궁엔 피비릿내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난처한 입장에 있던 것은 무스타하르의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총독부에 등떠밀렸을 뿐이지만 본의 아니게 살아계신 선대 술탄을 끌어내리고 성급하게 왕좌에 오른

천하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부왕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노술탄의 눈매엔 찬바람이 썰썰 불었으므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칫 하명꾸부위노 3세조차도 목숨 보전이 쉽지 않을 듯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버님 잘못이 아닌 걸 할아버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할아버님께 말씀드려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수척해진 하명꾸부위노 3세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유폐되어 있던 동안 전각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셨으니 그분의 사무친 한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해 준단 말이나? 그러니 너는 마음 쓸 것 없다.”

“하지만 아버님조차 목숨이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부왕께서는 내가 미답지 못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나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니 너도 당분간 나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내 옆에 있다가 너까지 불벼락을 맞아서 안될 일이지.”

그렇게 농담하듯 말하던 아버지의 웃음이 어딘가 슬퍼보인다고 무흐타하르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노술탄은 아들을 폐위해 태자로 내려 앉히고 자신이 다시 술탄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상황을 매듭지었습니다. 유약한 아들이 미답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1811년 11월 5일 하명꾸부위노 2세의 두 번째 대관식이 거행되었고 하명꾸부위노 3세는 태자로 강등되어 아디빠티 아놈(Adipati Anom)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태자’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한편 영국군은 쪼레본(Cirebon)에서 네덜란드군에게 잡혀 있던 노토크수로 왕자를 풀어주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는 하명꾸부위노 2세의 동생입니다. 그는 영국이 동인도 총독대행으로 보낸 토마스 스탬포드 빙글리 래플스(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를 만나 그가 가진 자바문화의 깊은 이해에 감탄하여 친분을 다졌고 그와 하명꾸부위노 2세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명꾸부위노 2세는 네덜란드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총독대행에게 붙어 다니는 동생도 영 마뜩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명꾸부위노 2세를 족자 술탄국의 지배자로, 라텐 마스 수로요를 아디빠티 아놈(태자)으로 순순히 승인해 주었던 래플스는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명꾸부위노 2세와 무섭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2세로서는 왕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민족을, 그것이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래플스 영국 총독대행

(출처 - <https://www.npg.org.uk/collections/search/portrait/mw05193/Sir-Thomas-Stamford-Bingley-Raffles>)

다 이 어 트

예전에는 비만을 병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질병의 원인입니다.

비만하면 대사질환, 면역질환, 심혈관계질환, 암 등 다양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외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만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게을러 보이고 매력도와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인식 때문에 비만탈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각지의 다이어트계에서 최고 권위자인 분들을 초빙하여 함께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다이어트 성공전략(경상도 최교수)

-실패원인(충청도 김박사)

-건강과 몸매 관리법(북한출신 황교수)

-Q&A(경기도 AI아나운서)

Part 2 -다이어트 노하우(전라도 임작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베트남 이응꾸강사)

-식단과 영양(강원도 양교수)

-체형별 다이어트 방법(서울대 박교수)

Part 1 -다이어트 성공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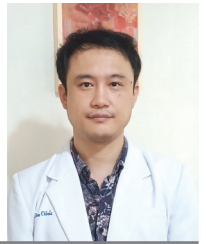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운동하면 살은 빠짐미데이~)

다이어트를 침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방법과 이론을 배울라꼬 이곳저곳에서 여러~ 자료들을 봄시로 공부를 할겁니다.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맨든다꼬 느끼신 분들도 많지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지요.

1.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지방을 태워야 하고, 그랄라면 공복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 카더라.
2. 위 사이즈가 작아져야 한다 카던데-소식자로 바껴져야 한다는 거지에.
3. 야채 과일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이빼고 단백질은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더라.
4. 짬 음식과 국물, 건더기는 피하는 게 좋다 카더라.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5. 간식은 웬간하면 먹지말고 먹는다 치면 당근, 견과류 종류를 먹어야 카는기라.
6. 가끔 힐링 타임도 필요할 텐데, 단백질과 야채위주 식단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짝게 먹는 게 좋다 아이가.
7. 과식을 했으면 칼로리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운동을 갑절로 해야 한다더라 등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맞다 하시지요?
칸테 실상은 이런 방법으로는 뚜렷한 감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거 아임미꺼.

1)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저당탄수화물 섭취하기: 정제된 탄수화물(흰쌀, 빵, 국수, 라면, 튀김 등)은 섬유질이 없다 보니까, 혈당을 급하게 상승 시키고(혈당 스파이크) 그 결과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그대로 지방축적이 되버리는 거라에.

이말이 좀 애롭지예?

쉽게 말해서 빵, 국수, 라면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겠지예~ 근데 이 인슐린도 적당히 나와야지, 갑자기 마이 나오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말아인교.

다량의 인슐린 분비(인슐린 저항성)는 지방축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혈관손상, 암, 치매 그리고 전신 염증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의 등락을 줄이는 식습관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 된다 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40세 이후 중년으로 접어들수록 성장호르몬과 근육량,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감소해 뻥뻥해 뺏살은 띠룩띠룩 찢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말이지예. 그러니 정제곡물은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대신 무엇을 섭취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통밀, 요거트같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는 저당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곳곳! 이라는 거 아임미꺼.(엄지척)

2) 단순당(콜라, 사이다, 사탕, 초콜릿 등)은 줄이고 천연당 섭취 높이기: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낼라카면 여러 가지 감미료를 첨가하지예, 그중 제일 마이 쓰고 하니 쓰는 것이 설탕류미더. 단맛이 쪼개, 아니 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마싹꼬, 음식이 마싹짜야 소비자들이 찾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현대인들이 즐겨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에는 다량의 당(화학설탕)이 함유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이!기!이!기! 문제라는 겁니다.

몸밖으로 분해되고 대사되어 배출되야 할 당찌꺼기들이 인체의 복부나 혈관 등에 쌓이면서 당독소가 형성되뻥뻥해 살이 더 찢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스테비아, 아렌설탕 같은 칼로리가 낮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흰설탕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말이지예.

3) 술, 담배의 위험성: 알콜성분의 90%는 간에서 해독되는 거 다들 아시지예~

알콜성분을 분해하느라 바쁜 간은, 인체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지방형태로 복부나 팔, 다리에 저장함으로써 비만이 되고 내장지방이 겹겹이 싸이게 되는 겁미데이. 담배 또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내장지방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러니 끊지는 모테도 주리도록 노력해야 겠지예~^^

4) 의자병: 요즘 생긴 신종병명입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난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활동량은 줄어 버려 근육량은 감소하고, 근긴장도는 높아져 칼로리 소비가 줄어가 비만을 맨들 뿐 아니라 목, 어깨, 허리 등 통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지예.

5)수면: 앞전 칼럼에서 면역세포는 수면 중 감감한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한다고 언급한 것 기억하시지예.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온 몸에 세포들이 청소하고 휴식하는 시간인데, 호르몬이 갈무리 하는 즉, 생체리듬을 안정화 하는 시간이란 겁니다.

특히 밤10~새벽 2시 사이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성장호르몬이 부족하면 비만하기 쉽고 노화도 촉진된다고 하니, 수면이 불규칙하면 정말 소름소름합니다~이.

6)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호르몬: 불규칙한 식습관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맨들고 전신염증과 지방축적으로 이어집니데이~

불규칙한 수면과 휴식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을 분비하여 지방축적을 가속화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비만해지기 쉽꼬 오만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말 입미더.

위의 내용들을 어느 경상도사나이의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저녁 8시. 멀리서 어무이가 치킨시켰다고 무로 온나칸다.

나는 말했다. 어무이! 시간이 몇신데 치킨을 시켰노 나는 8시 이후에는 암것도 안먹는다 했다 아이가. 어무이나 실컷 무라 나는 안 몰란다.

어무이는 답했다. 니는 와 썩을 내고 지랄이고, 안 몰라면 치아라. 내랑 동생이랑 다 무 치알란다. 나는 신발을 챙겨 신고 치킨대신 산책을 나갔다.

산책하며 지난날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다가 아침에 출근시간 늦어서 혼나고. 그라다 보이 운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뱃살은 늘어나고, 회사에서도 앉아서 일하는데.. 이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도 끊었는데 작심 3일이라꼬, 금세 하다 말고...

하~ 한심해서 거울보다 살만 띠룩띠룩 찢 모습에 연거푸 한숨만 나오네.

이를 우짜면 좋노! 싸나이 체면 말이 아이네. 은자는 진~짜! 식단짜서 실천하고 외식도 계획적으로 하고 술도 적게 마시고, 운동도 하고, 잠도 딱~딱! 맞춰가 자고 일어나고 할끼다.

정신차리자!! 이라다 장개도 못가겠다TT

저희는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게 뭐꼬, 나에게 적합한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맞!춤!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패원인

첫 번째: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실패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유? 식욕조절? 아니른 과음? 아님 의지력부족?

내 친구가 답을 알려주유.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유- “아따 바닷가 가서 소고기 찾으먼 어쩐다냐” 이말이 뭘 말이나면유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구만유. “안먹으면 살빠질거여”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은 다이어트 실패하는 지름길이 구면유.

제 여동생이 초기에 약간의 감량에 성공했다구 참말로 좋아했는디...금세 체중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것슈. 그러더니 다시 빠려고 굶다가 식욕이 폭발해서 예전보다 더 찌꺼. 어찌겠슈~ 다시 굶기를 반복하더니 때려 치웠슈~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몸은 망가지고 부작용으로(탈모, 피부노화, 체력저하, 무월경, 소화불량, 불면증, 근감소증 등등)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랑게요.

억지로 식욕을 억제하면 뭇혀요,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면 뭇혀요, 억지로 운동하면 뭇혀요, 결국엔 오래 유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할턴디!!

****정리해서 말하자면 의지력이 필요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라는 말이쥬****

지가 다이어트 한다고 한참 깎칠 때 형님이 한마디 합디다.

사람은 말이어 본성이 식탐이 있단 말이어. 그러니 음식욕구를 참지 못 하는디 소식해봤자 헛거야! 그래서 전 그때 결론을 내렸슈.

다이어트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동안 의지력이 약허다. 노력이 부족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시방 눈물이 핑~ 할것이어.

우리 몸은 생명유지가 첫 번째디,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가 필요한 건디 영양소가 부족할 때 뇌에서 말이어 음식섭취가 필요허다는 신호를 강력히 보낸단 말이어.

그런게 이 신호가 식욕을 증가하고롬 만드는 것인디,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한테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구면.

이러한 본능적인 현상을 극복하려 허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무지게 잘못된 생각인 거,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말이쥬.

다음 호에 계속



종이꽃 (부겐빌레아)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열대 지방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피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종이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변과 공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심고 사랑받는 귀한 식물이다. 다년생인 종이꽃은 반 덩불형으로 키가 1미터에서 2미터 이상 자라며 풍성한 잎과 화려한 색상을 자랑한다.

특히 생존성이 매우 강하여 장소와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일 년 내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색상 또한 빨강, 분홍, 흰색, 자주색, 등 다양하다. 심지어 한 나무에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색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이꽃에서 내뿜는 향기 따위는 애당초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뿐인가 종이꽃은 생김새부터가 꽃다운 꽃이기를 거부한다. 꽃의 모양새는 색종이를 꾸깃 꾸깃 뭉쳐서 던져 놓은 듯하고 꽃의 상징인 어여쁜 봉우리도 없고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 법한 꼴샘도 보이지 않는다.

자연환경은 기후 여하에 따라 인간의 피부색을 검게 혹은 하얗게 하듯이 꽃의 향기 역시 가혹한 기후의 영향에 취약하다. 온대지방의 적당한 온도와 음지에서 자라는 청초한 꽃들은 대다수가 잎이 여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지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꽃들은 대개는 향기를 품지 않는다. 그 화려함에도 오죽하면 벌과 나비조차 거들떠보지 않을까?

생명체는 천박하고 모진 환경에서 건디는 놈이 더욱 강건하다고 한다. 적도의 작열하는 태양은 어떤 연한 꽃잎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그 불벌 속에서도 꿈적 않고 강인한 자생력으로 진화한 종이꽃을 보노라면 척박한 환경에도 주눅 들지 않고 꺾꽂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여인들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근로자 중에 유난히 앳된 소녀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나뭇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었다.

“너 몇 살이니?”

“열여섯 살요!”

아직 노동해서는 안 되는 나이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소녀는 이미 결혼하여 애가 하나 있다고 했고 그녀의 남편은 자카르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온다고 했다. 옛날이나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인도네시아 여성의 조혼 풍습이다. 도회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을 지라도 시골 지역의 대다수 여성은 조혼을 통하여 가난과 외로움을 쉽게 해결하려는 풍습이 남아 있다. 이러한 풍습은 남편의 준비되지 않은 생활 능력과 연계되어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세의 침략으로 오랜 식민지 생활에 젖어 무능과 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혼 풍습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조산으로 일찍 늙거나 병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 모순이 여전히 존재한다.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은 어느 나라건 흔한 일이다. 인도네시아의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오히려 성가시게 보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그냥 살기 힘들면 남편이 어디로 사라지든가 돈 벌러 간다고 나가서 아예 연락을 끊은 일이 허다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짜라 반투안 끄 아낙 야뎸 (acara bantuan ke anak yatim)

그날은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한꺼번에 100여 명의 아이가 몰려온다. 물론 지역 촌장이 추천하는 극빈자들이다. 회사에서는 준비된 물품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미취학 아동을 선별하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비용을 주선하는 행사이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들은 친척들이나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며 근근이 살아간다.

세계 이슬람 국가 중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종교로 인한 탄압 또한 적지 않다. 불편하고 답답한 히잡 사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문화적 압박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여 여러 명의 부인이 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여권이나 결혼관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크게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지키며 밝게 살아간다.

척박한 땅에 태어나서 푸른 잎을 가꾸며 향기 없는 꽃을 피울지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꾀꿉하게 자리를 지키는 적도의 종이꽃처럼!

팝 아트를 소개합니다!



『최고 예술가는 바로 나야!』

매리언 튜카스 지음, 서남희 옮김, 국민서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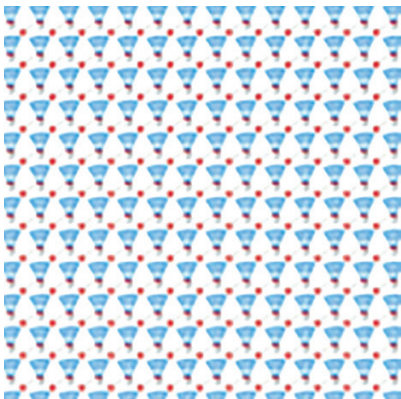
Bob Goes Pop! (2020)

학창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제 시간에 과제를 끝낼 수 없고 너무도 당연히 점수도 낮았던 미술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미술에 재능이 없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학교를 졸업하니 미술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예술은 시간 제한을 두고 완성해야 할 과제도 아니고 남이 점수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정규교육과정을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짐했다. ‘내 아이들은 절대로 예술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생활에 늘 숨쉬고 있음을 알려줘야지’ 하고 말이다. 그림책 『최고 예술가는 바로 나야!』는 그런 목적에 딱 부합한다.



원 제목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Bob Goes Pop! 팝 아트(Pop Art, Popular Art)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다. 작가 매리언 튜카스(Marion Deuchars)는 예술을 그림책으로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전에 이미 앙리 마티스와 잭슨 폴록을 이야기하는 『나보다 멋진 새 있어?』 Bob The Artist (2016), 피카소의 청색시대를 보여주는 『내가 왜 파란색으로 그리냐고?』 Bob's Blue Period(2018) 두 권의 작품을 썼다. 작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다. 미학의 이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전 작에서 앙리 마티스, 잭슨 폴록, 피카소를 대표했던 빌리(원작이름 Bob을 번역본에서는 빌리로 바꾸었음)네 동네에 유명한 조각가 로이가 이사 온다. 요즘 핫하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빌리는 로이를 찾아가는데, 로이의 조각 작품들은 정말로 재미나고 독특했다. 회화를 그리던 빌리는 로이를 의식하며 조각을 시작하고 작품 경쟁을 한다. 그러다 아이디어의 한계를 느낀 빌리는 로이의 작업실을 몰래 훑쳐보고 같은 작품을 만들어 선보인다. 서로 자기가 먼저 생각한 거라며 싸우다 풍선으로 만든 작품이 터졌다. “POP!” 미안한 마음에 빌리는 로이에게 사과를 하고 둘은 합심하여 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작품을 완성한다. “이제 우리 둘 다 최고 예술가야!”라고 외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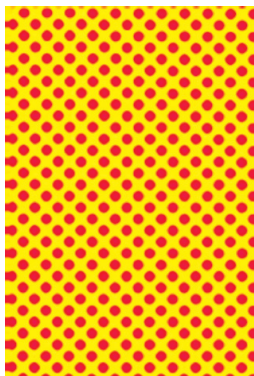


<그림책 속지>



클레스 올덴버그 & 코샤 밴 브루켄 <서틀콕> , <스프링>

재미난 스토리에서 잠시 눈을 떼면, 실제 팝 아트 작품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그림책 곳곳에 숨어 있다. 책 겉장을 넘기자마자 나오는 속지 속 배드민턴 셔틀 콕은 대형 오브제를 도시 공간에 설치했던 클레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와 아내 코샤 밴 브루겐(Coosje Van Bruggen)의 <셔틀콕>이 떠오른다. 그들의 작품 중 <스프링>은 서울 청계천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들이 예술이 되어 미술관이 아닌 일상 생활 공간에 나타나 개개인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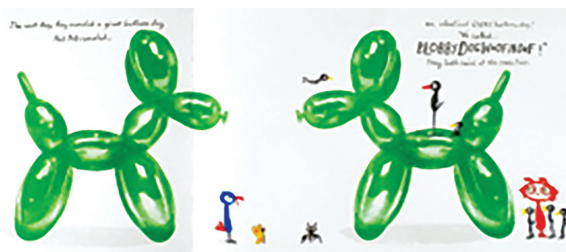


<그림책 속표지 옆 장>



로이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음 어찌면>

속지를 넘기면 보이는 속표지 옆에는 눈에 띄는 노란 바탕에 빨간 점들이 있다. 어디서 본 듯한 이 점들은 바로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트레이드 마크인 벤데이 닷(Benday dot)이다. 색을 점으로 분할하여 찍어내던 19세기 대량 인쇄 기법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들은 확대하여 보면 모두 이 점을 볼 수 있다. 팝 아트 사조 이전 추상 미술주의는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에 반대하여 나타난 팝 아트는 1950년대 대량 생산/소비 분위기와 맞물려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들을 작품의 재료로 선택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대량 인쇄기로 찍어낸 듯한 느낌을 주고자 벤데이 닷을 이용했다.



<그림책 본문>



제프 쿤스 <풍선 개>

대중적 소재를 작품으로 표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내용이 재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작가는 이를 제프 쿤스(Jeff Koons)의 <풍선 개>로 풀어낸다. 팝 아트를 통해 고급 예술이 대중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대중적이기에 소재가 겹치고, 예술의 고유성에 대한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로 따라쟁이라 비난하며 대립하던 빌리와 로이는 결국엔 서로 잘하는 부분을 맡아 공동 작업을 하며 해결점을 찾는다. 예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딱이다.

팝 아트를 단순히 상업적으로 트렌디한 면만 지녔다고 보기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 팝 아트는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의식 없이 관습적으로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시대를 빠르게 읽어내는 매우 영민한 예술 사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지나가면서 만져도 보고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 같이 기념촬영을 하다가 파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손 닿는 거리에서 삶을 예술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팝 아트가 추구하는 지향점 아닐까? 예술을 사랑하고 아이들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어른들에게, 혹은 관심은 많지만 아직 예술에 다가가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플로렌타인 호프만 <리버덕 프로젝트>



제프 쿤스 <퍼피>

‘수카르노의 꿈’ 수카르노의 꿈을 찾아 걷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소속 한인니문화연구원은 2024년 1월 13일 ‘수카르노의 꿈’을 주제로 제338회 문화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의 독립 인도네시아에 대한 꿈과 실천을 발견하고 토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문화탐방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의 박준영 공동연구원(한인니문화연구원 도시연구팀장)이 진행했다. ‘수카르노의 꿈’ 문화탐방은 호텔 인도네시아(Hotel Indonesia Kempinski)에서 시작하여 환영 동상(Monumen Selamat Datang), MRT 정류장(Stasiun Bundaran HI)를 지나 사리나 백화점(Gedung Sarianah)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호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1962년 제4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며 대회 기간 중 귀빈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5성급 호텔이다. 수카르노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건축을 전공한 수카르노는 호텔 인도네시아 건축 설계에 참여할 만큼 호텔 인도네시아에 많은 애정과 열망을 갖고 있었다. 호텔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루프탑 바와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대형 연회장 등이 건설됐다.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호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국내, 국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으며, 해외 정상과 유명인 등 귀빈이 묵는 숙소로 활용됐다.



호텔인도네시아 라마야나 플라타란

호텔 인도네시아는 인터컨티넨탈, 쉐라톤 등 국제 호텔 체인 기업이 운영하기도 했으며 한 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하다 2009년 리모델링 이후 캠프스키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어 처음 건설 당시의 모습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다. 문화탐방에서는 호텔 인도





사진제공: 박준영

네시아에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루프탑 수영장과 야외 정원인 라마야나 플라타란(Ramayana Pelataran) 등을 둘러보며 호텔 인도네시아에 재현된 수카르노와 신생 독립국 인도네시아의 꿈을 체험했다.

환영동상

문화탐방은 호텔 인도네시아 탐방 이후 도보로 이동하며 환영 동상과 MRT역으로 이어졌다. 환영 동상은 제4회 아시안게임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선수단과 관람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동상이다. 이 동상은 두 명의 인물이 손을 들고 꽃다발을 흔들며 맞이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동상은 약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이어서 현재 자카르타 MRT의 종착역인 ‘호텔인도네시아 회전교차로(Bundaran HI)’ 역을 방문했다. 이 역은 자카르타 MRT의 첫 노선, 첫 번째 구간이 개통한 2019년에 개장했다. 이 역은 이후 연장될 자카르타 MRT 노선의 중심이 될 역이기도 하다. 자카르타 MRT는 무더운 열대 기후와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있는 자카르타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MRT를 탑승하지 않았지만, 역사를 걸으며 MRT를 간접 체험하고 MRT를 이용하는 자카르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리나 백화점

문화탐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사리나 백화점의 모기업인 사리나(PT Sarinah)는 인도네시아 국영 지주회사로 1962년 창업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농산물과 공산품의 가격조정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사리나 백화점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수공예품과 의복 등의 제작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리나는 수카르노의 유년 시절 보모의 이름이며 수카르노는 사리나로부터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수카르노의 사리나에 대한 존경심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기업의 이름을 사리나로 지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탐방을 통해 느낀 독립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카르노의 꿈과 실천이 현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개인 참석자를 비롯하여 가족, 친구와 함께 참석한 단체 참석자 등 총 약 25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문화탐방에는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고려대학교 총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자카르타 사무소 소장이 참석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신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12일 로얄 자카르타 CC에서 신년회 및 신년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청룡의 해를 맞이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 모두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 한다고 했다, 특별히 신년회에 참석하신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이상덕 대사님, 박수덕 공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한인회 박재한 회장,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회장을 비롯한 교민사회의 주축인 각 협의의 단체장들과 국장들까지 함께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더불어 지난 해 8월10일에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가 자매결연한 서울특별시 지부 김상

덕 회장님과 회장단 열 여덟 분이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 지부를 방문. 함께 함으로서 성대한 신년회가 되었다.

2024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 이다. 강석호총재 의 영상 새해 인사 말씀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대한민국을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는 물론, 2024년 한해에도 활기찬 경제활동과 역동적인 교민사회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제공: 인천매거진)





제 3회 KIM아카데미배 인니전국여성골프대회

지난 1월 16일 화요일, 반둥 코타바루 빠라양안(Parahyangan)에서 제 3회 KIM아카데미배 인니전국여성골프대회가 열렸다. 김민석 프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교민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2019년에 첫 대회가 이루어졌다.

2019년에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두 번째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1회, 2회 때 40여명 정도의 반둥교민들이 참가하였던 이 대회는 2024년 세 번째 대회를 개최하면서 120여명의 반둥 교민들을 비롯한 자카르타, 땅그랑 및 찌까랑에서 온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양영연 재인니한인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제3회 MS KIM아카데미배 인니전국여성골프대회에서 1등은 안중순 씨(땅그랑), 2등은 박지은 씨(땅그랑), 3등은 김성경 씨(찌까랑)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김민석 프로는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MS(김민석)배 여성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아카데미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동포들의 타국 생활에 활기를 더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뉴스>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아카이브로

한인미디어, 한인들의 소통과 정체성
형성 기능은 여전히 유효해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1990년대에 온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식당과 상점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며 살았을까? 자카르타국제한국학교(JIKS)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한국 ‘평화의 댐,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처음 한국어과가 생길 때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1998년 5월사태 때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한인미디어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한인회와 대사관의 활동, 인도네시아 시사 뉴스, 인도네시아 생활 정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한인들의 문학작품 등 다양한 뉴스를 보도한다. 한인 광고지는 한국식당과 한국슈퍼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매체지만, 그 광고들을 통해 한인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한인상공회의소, 대한체육회, 주요 산업협회, 한국학교 등도 각자 회보나 신문을 만들지만, 회원이나 구성원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다. 대중성과 접근성 그리고 공신력에서는 한인뉴스를 포함한 한인미디어를 따라오기 힘들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와 <동남아한인연구 총서 인도네시아편>은 한인뉴스의 기록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이어 데일리인도네시아와 한인포스트의 뉴스도 인용했다.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가 미디어가 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창간 이래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발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벼룩시장과 한울, 일요신문과 한타임즈는 이미 폐간했고, 종이로만 발행하는 여명(구 소망)과 교민세계도 이전(과거) 호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쉽지만 온라인화 이전의 정보들이 사라졌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지회는 웹사이트



트를 운영하지만 회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고, 일부 산업협회가 회보를 발행하지만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기록이 1회성으로 휘발되지 않고 모여서 저장되고 도서관의 책처럼 구글의 정보처럼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를 아카이브(archive) 겸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나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시설, 기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2013년 3월 8일)에서는 ‘아카이브’를 ‘기록 보관’,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화’로 순화하였다.

한인뉴스가 한인 기록소 또는 플랫폼이 되려면 한인뉴스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게 웹사이트를 개선해야 한다. 종이잡지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더라도 개별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해야 하고, 개인이 소식을 올리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한인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뉴스를 공유해야 한다. 원고료를 지불함으로써 원고의 질도 높여야 한다.

정부 기관과 한인들도 한인뉴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인뉴스는 기업들의 광고수입과 후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며, 콘텐츠는 무료 원고로 채운다. 재외동포단체와 연구자들은 해외 한인미디어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촉구한다.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인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부 정책과 대사관 소식을 알릴 것을 권한다. 한국기업과 한인들도 광고와 후원, 기사 공유와 기고 등으로 한인뉴스를 지원해야 한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한동섭 교수는 재외한인언론이 정보 제공과 한인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언론의 고유한 기능으로 고국과 거주국의 소식 보도,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 자연재해나 소요사태 등 위기 상황시 신속한 정보 전달(위기관리), 차세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재외동포를 위한 의제 설정,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 거주국 주류 사회에 한국 알리기, 재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았다.

1945년에 포로감시원으로 왔던 조선인들은 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조선인민보>를 발행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1972년 거류민회를 설립하고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거류민회보를 발간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1995년 교민세계와 여명, 1996년 한인뉴스가 창간했다.

이어 1997년 K-TV, 1998년 벼룩시장과 한울, 1999년 데일리인도네시아, 2002년 일요신문, 2003년 한타임즈, 2005년 한나프레스(한인포스트), 2006년 인도웹, 2007년 OKTN, 2012년 자카르타경제신문이 설립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미디어와 웹사이트,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한인포스트 밴드와 인도웹 및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개인이 직접 소식을 전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한다. 2013년부터는 한인 유튜버들이 등장했고, 2021년 온라인 미디어 인니투데이가 창간했다.

한인미디어는 자연재해, 정치·사회적 소요사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는 5월 사태와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 민주화 시위와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탄핵, 도심 테러 등 사회 혼란과 치안 불안이 심각했고, 이에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한인뉴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알렸고, 1999년 창간한 데일리인도네시아는 하루 두 차례 뉴스레터를 통해 시위와 자연재해 소식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해 한국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한인미디어들은 웹사이트,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도네시아 상황과 자연재해 소식을 보도하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새로 정착하는 한국인은 물론 인도네시아에 오래 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언어장벽,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한인 미디어는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법, 제도, 정책, 문화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런 뉴스들이 쌓여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다.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모두가 공신력과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다.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의 아카이브로서 한인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 202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S”, 학교장이선아)는 2024년 1월 11일(목) 제 25회 고등학교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을 하는 12학년 84명 학생을 위해 대사관, 한인회 등 많은 분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미래 한인 사회의 주역들을 향해 응원해주었다. 학생 모두가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수여 받고 학부모님, 내빈,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선아 교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지난 12년간의 초·중고 학창 생활을 마무리하며 사회로 향하는 졸업생들에게 꿈을 향해 정진하라고 당부하며 직접 지은 아름다운 시를 낭독하면서 그리움과 희망을 표현하여 졸업생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공사는 졸업식 축사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낸 학부모님,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여 글로벌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겸 재단법인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지난 한인사회의 성장과 함께해온 자카르타 한국국



제 25회 고등학교 졸업식 졸업장 수여

제학교의 역사 속에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한인사회의 자랑이라고 말하며 지난 역경을 이겨내듯이 미래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2023학년도 놀라운 대학입학의 쾌거를 올렸다. 서울대학교 4명, 연세대학교 33명, 고려대학교 4명, 성균관대학교 34명, 서강대학교 19명, 한양대학교 29명, 중앙대학교 34명, 메디컬 계열에서는 가천대학교 의대 1명, 가천대학교 약대 1명, 중앙대학교 약대 1명 등 총 42개 대학 307명(중복합격 포함)이 합격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이선아 교장은 학력 신장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이 맺은 결과라고 말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최고의 재외국한국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 25회 고등학교 졸업생 일동

즈빠라 한인회 인도네시아 최대 한글학교 300명 입학식

“한류는 물결이다!”



2024년 1월 6일 오후 1시 즈빠라 한인회관에 모인 운영진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행사를 주관한 한인회를 당황스럽게 한 장대비가 쏟아졌다. 억수처럼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다행히 기다리던 300여 명의 입학생이 실내 체육관으로 밀려들었다. 예정과 달리 400여 명이 족히 넘겠다. 비 맞은 학부형과 입학생의 얼굴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 흘렀고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할 김동식 선교사가 지휘하는 합창단의 「고향의 봄」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중에서 한인회관을 보유한 한글학교의 매머드급 입소식이다. 즈빠라 한인회는 2003년부터 <중부자바한인회> 지부로 모이다가 2010년 초대 양재형 회장을 중심으로 공식 결성되었다. 2대 문창윤, 3대 박상규, 4대 문창윤, 5대 김 신, 지금은 6대 박호섭 회장이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활동 회원은 400여 명이다.

한인회의 활동 중심이 되는 즈빠라 한인회관은 부지를 마련하고 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전임회장과 현회장의 노고로 한인회관이 건립되어 2021년 6월 9일 개관식을 했다.

입학식은 건축에 큰 힘이 되었던 김판식 교장의 개회사, 박호섭 한인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한글학교 입학 신청 후, 허락받은 입학생 뿌뜨리 코피파(Putri Khofifah, 24 tahun)와 안자니 익사나툰 닉라(Anjani Ikhsanaton Nikhla, 15 tahun.)양의 표정이 진지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글을 배운 후, 한국에 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꿈을 이루려고 한글 배우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모습이다.

작년에 「재외동포청」에서 2,500달러를 지원받았지만, 교사와 300여 명의 학생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빠라 한인회는 영세 가구업에 종사하는 80여 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인니에서는 발리에 이어 한인회관을 건립한 지역한인회이다. 하지만 가구 도시 즈빠라 지역은 가구 산업의 쇠락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현재는 쯔빠라 지역은 파크랜드와 화승을 비롯한 신발업체와 봉제공장이 새롭게 진출해 한인들이 400여 명으로 늘었다. 새로 진출한 한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는 김판식 교장의 당부다.

수업이 시작됐다. 3개 교실에서 초등학생 68명, 중고등학생 54명. 대학생과 성인 153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수업태도가 한류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박호섭 회장은 한류 문화와 함께 삼성, LG 등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인들이 한글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발맞춰 한인회가 한글학교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뉴스로 잘 어필되어 관계기관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한인회의 열정에 적극 협조와 당부를 부탁했다.

한류는 바람이 아니고 물결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를 간파한 정부도 재외국민을 발판으로 하려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는 현지에 오래 정착한 한인들이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즈빠라 한인회를 본다. 이들의 기름 부은 열정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중심에 서는 글로벌시대를 이끌기를 바란다.

취재 및 정리: 이태복(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박호섭 즈빠라한인회장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2)

(편집자주) 한인뉴스는 2023년 9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어판으로 발간한 책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의 한글 원본을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제1장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50년

2. 초창기(1973~1988년): 외교관계 수립부터 전두환 정부까지

1) 협력과 신뢰의 토대 마련

1973년 9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남·북한이 대사관을 한 곳에 개설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당시 비동맹 중립국 진영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와의 정식 수교는 한국 정부가 비동맹 중립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답방이 있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초창기 산림개발 업체들의 뒤를 이어 미원, 한일시멘트 등 제조업체들이 진출했다. 건설 분야

에서도 삼환기업, 신한기공, 대림산업, 현대건설, 경남기업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동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자카르타 한국학교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1973년 9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각 김좌겸 총영사와 베니 무르다니 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973년 10월 23일 한국 정부는 김좌겸 주자카르타 총영사를 초대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했다. 인도네시아는 1974년 4월 18일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 사르위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를 임명했다.

2) 초창기 군사 관계 및 인도네시아에 쌀 대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사 관계는 1970년대 초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10월 인도네시아 안보·질서회복사령관 땡가베안



1974년 5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르위 에디 위보워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았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Panggabean) 장군 일행이 심흥선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군사회담을 가졌다. 1972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군의 초청으로 서종철 육군참모총장 일행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에는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고, 1973년 8월에는 바사라(Basarah)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답방했다. 양국 군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1974년에는 무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었다.

1977년 11월 30일에는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과 사르위 에디 위보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쌀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을 지원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긴급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쌀 7만 톤을 대여하기로 신속히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첫 선적이 이루어졌다. 쌀을 수입하던 한국이 외국으로 쌀을 대여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의 영농기술이 획기적으로 혁신되었고, 연이은 풍작으로 주곡인 쌀이 자급선을 넘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3) 한국 대통령의 최초 인니 방문과 인니 대통령의 최초 방한

1980년대 한국 정부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81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였다. 아세안의 첫 방문지는 인도네시아였고, 이는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과 한국 정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바탕에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82년 10월 16일 수하르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흘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 이후 아세안 지도자로서 최초의 답방이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간의 직접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남북한 유엔 가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태평양지역 내 개발도상국 간 협력 증진의 표시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으며, 양국 대통령은 민간 부문 합작사업의 증진을 장려하기로 했다.

4) 한국과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1984년 7월 25일 염보현 서울시장의 자카르타

를 방문 수쁘랍또(Suprpto) 자카르타 주지사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지방정부 간 최초의 자매결연이다. 이에 따라, 1985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민속예술단의 서울공연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부채춤과 살풀이 공연을 선보였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자카르타 이외에도 발리주-제주특별자치도, 수라바야-부산광역시, 동부자바주-경상남도 등 2022년 현재 28개 지자체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사르워 에디 초대 주한 대사… 사위 유도요노 대통령과 아니 여사

1974년 4월 18일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 Wobowo)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돼 4년간 근무한다. 중부자바주 뿌르워레조에서 태어난 사르워 에디 대사(1925~1989)는 네덜란드 강점기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일본군이 설립한 조국의용대(PETA, Pembela Tanah Air)에 자원하면서 군인으로 성장한다.

1965년 공산당이 주도한 쿠데타인 9·30사태(G30S)를 당시 수하르토와 함께 진압하면서 수하르토 정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도 했으나, 인도네시아군사관학교(Akademi TNI) 교장과 지역사령관을 역임한 후 전역한다. 사르워 장군은 사관학교장 당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후보생을 수석 졸업으로 배출한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을 받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당초 서울 이태원에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피스빌딩과 아파트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여의도에 공관용 부지를 분양해주어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르워 에디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의 7남매 가운데 셋째 딸인 크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부인 수나르티스리 하디아 여사의 예방을 받아서 환담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리스티 아니(Kristiani Herawati) 여사는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힌 지한파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가 한국에 근무하던 시기에 아니 여사는 당시 군인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와 결혼했다. 인도네시아 최초 직선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웠다.

2019년 별세한 아니 여사는 1973년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교(UKI)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근무한 한국에서 생활했다. 이후 1998년 인도네시아 개방대학교(Universitas Terbuka)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아니 여사가 부모와 함께 서울 생활을 할 당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아니 여사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결혼 전 연애 이야기도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남 에디 바스꼬로 유도요노 역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사르워노 장군이 주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예비 사위였던 자신에게 “한국 국민의 역동성과 자립 의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을 닮아라.’”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다음 호에 계속)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 02.10.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 04.01.

매일 08:00 ~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카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하타(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카르노와 무하맛 하타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뼈강사안/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법이라고 부르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1948년 제2차 침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당사자 간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며,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 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56년 11월 10일 반등에서 헌법국회가 개원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되자,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애국가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즉, 삼권분립이 되어 있

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최초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토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방자치는 주(Propinsi),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애매모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협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정부통령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지방대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협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회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이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법에 의거하며,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청을 가진 압둘라흐만 와히트를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기능,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
-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지붕 위에 다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한다.
-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할 수 있으며, 국가 예산, 세금,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국가 예산, 세금,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독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통도通度 홍매

누구나 도를 깨친다는
통도의 계단 앞에
당신은

누구나 꽃 피운다며
붉게 숨죽이고
있었네



글: 김주명

사진: 김정래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 우나스(UNAS) 공동주최 86회 열린강좌 UNAS에서 열린 초청강연, 경복궁 이야기

한인니문화연구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카르타에 소재한 우나스(Universitas Nasional, UNAS)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마침 한인니문화연구원 국제교류팀의 안미경 부원장이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어 가능했다. 안미경 부원장은 현재 서울시 문화해설사로 활동 중이다. 주로 궁궐해설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연 관심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한.인니 문화연구원 이름으로 수료증이 발급된다고는 해도 생각보다 많은 150여명의 학생들이 UNAS 소강당을 메우고 있었다.

UNAS는 1987년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한국학 연구소(한국학 센터)를 세워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과를 개설했으며, 20005년 5월에 교육부 공식 인가를 취득하면서 2017년부터 4년제 한국어과가 설립되었다. 한국어 학과의 오랜 역사 때문인지 한국어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실력이 월등해 취업시장에서의 인기도 많다고 한다.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한국어과 학생수가 거의 500여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한국에서 온 새로운 책을 전달·기증하기도 하고 코리아 코너를 가끔 방문하기도 한 인연으로 초청받아 한국의 법

궁이었던 경복궁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연을 얼마나 이해할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1987년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한국어 학과 개설한 UNAS에서 법궁 강좌 열려 더욱 뜻깊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세종대왕을 아시는지요?” “네!!!” 우렁찬 대답으로 강의는 처음부터 열기가 가득했다.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조선은 고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임금이 되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강의는 40여분간 몇개의 전각소개와 건축의 특징 조선왕조 실록, 세종대왕 이야기 등으로 진행이 되었다.

UNAS 한 학생은 기억에 남았던 강의 내용은 조선왕조 실록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실록은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야기나 대신들의 일기 등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은 모두 기록으로 남긴 것과 조선의 25분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472년이라는 최장기간 기록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 유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니,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질서가 약육강식의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조선이 생각한 것은 바로 교육과 기록이었다. 교육을 잘 받아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군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성인군자가 조선을 다스려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직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의 목적이다.

강의 후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한국어로 궁궐의 장례문화와 한국 건축의 특징 등 깊이 있는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한국과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궁궐의 장례문화에 대한 답변은 임금이 돌아가시면 약 5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먼저 국장도감, 빈전도감, 그리고 능을 조성하는 산릉도감 이렇게 3개의 임시 관청이 만들어지고 장례준비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장례기간 중 다음 임금에 대한 즉위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즉위식은 우리 생각처럼 즐거운 날이 아니라 슬픔속에서 잠시 의식만 행하고 다시 장례에 참석해야 했다. 자료로 남아있는 즉위식의 화려한 그림은 세종임금님의 즉위식이다. 아버지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소통의 시간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마지막은 근정전 앞 화려한 조명과 무대의 BTS 뮤직비디오 시청으로 젊음의 환성과 설렘 속에 마무리되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UNESCO 국제기록유산센터

대한민국은 왜 기록유산 강국일까?

유네스코는 1946년 설립된 유엔(UN)의 전문기구로 기록유산 보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1997년부터 2년마다 각 나라와 기구에서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을 심의해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한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넘어 세계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자료, 그 시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자료 또는 뛰어난 미적 양식을 갖춘 자료 등의 선정 기준이 있다.

기록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보유한 나라다. 특히 『직지』는 한국의 발달한 인쇄문화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록 중 2023년에 등재된 2건(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혁명 기록물)을 더해 총 18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기록유산 강국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을 선조들의 습관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통해 국가의 주권 강화와 외부 침입에 대비하려고 했다. 조상들은 기록이 미래 세대에게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1월 『직지』의 고향인 충청북도 청주시에 유네스코가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개관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록유산의 강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직지심체요절’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8건으로, 이들 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학교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내용까지만 알려 주고 열람의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01. 직지심체요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02.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에 수록된 반차도 중 왕의 가마[輦], 연 부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년 필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 신흔여행을 프랑스로 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도착해 사서에게 정중히 『직지』의 원본 열람을 요청했으나, 원본열람 대신 아카이브 인터넷 주소만 받을 수 있었다. 원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사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본을 직접 마주하는 감동의 경험은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직지』에 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탐구하며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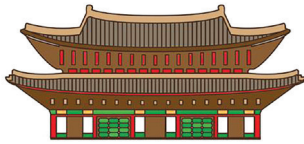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기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기록한다. 기억은 수증기처럼 증발되기 때문에 문자나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개인과 타인의 공유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공유하고 싶어 기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행위의 기억을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을 공유가 필요한 시기에 순간적으로 포착 대상을 기록한다. 기억이 기록의 형태를 통해 고유화되면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소통한다. 타인과 소통은 음성 또는 시각 언어로 가능하지만, 소통의 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이다. 즉, 기록은 행위자 사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매개체’가 된다.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모두 이해하려면 내용과 종류도 많아 어렵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매개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대량의 정보와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기록유산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기록을 분류하고 컬렉션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각 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을 시공간을 초월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후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글, 사진. 홍덕용(《세계기록유산 100%활용하기》 저자)



박승현 (ACS Jakarta, G9)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5회 열린강좌 안미경 문화해설사의 ‘덕수궁이 품은 고종과 대한제국 이야기’

2024년 1월 6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제85회 열린강좌가 열렸다. ‘덕수궁이 품은 고종과 대한제국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열린강좌는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제77회 열린강좌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경복궁 이야기’의 인기에 힘입어 두 번째로 진행된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다. 강의를 진행한 안미경 문화해설사는 서울 시도보관광 문화해설사이자, 마인어 관광통역안내사로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국제교류팀의 부원장을 역임 중이다.

강사는 미리 준비한 강의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국 국가의 정궁이었던 덕수궁에 얹힌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일화와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덕수궁’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1592년 임진왜란 후 선조임금 시기부터 대한제국의 시작인 1897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1905년, 그리고 1907년 을사늑약의 무효를 전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대한제국의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 여파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면서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궁호가 바뀌게 된다. 1910년 경술국치 이어서 1919년 의혹이 많은 고종의 승하로 덕수궁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시기까지의 대한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듣는 내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세계사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놓였던 현실이 조금은 아프게 다가온 시간이었다.

1897년 고종이 아관에서 돌아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환구단’을 시작으로 현재 덕수궁의 정문으로 사용되는 ‘대한문’, 대한제국의 정전과 정전 앞의 문인 ‘중화전과 중화문’, 덕수궁의 전각 중 유일하게 단청이 없는 ‘석어당’, 황제의 침전으로 사용되던 ‘함녕전’,



1900년경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이 우리의 전통적인 한식과 서양건축양식을 절충하여 지은 ‘정관헌’, 황제의 편전과 침전으로 사용되던 ‘준명당과 즉조당’, 덕수궁의 하이라이트 근대식 석조 건물인 ‘석조전’과 2023년에 새롭게 문을 연 ‘돈덕전’과 대한제국의 좌절과 국권수호 의지가 동시에 담긴 ‘중명전’을 소개했다.

안미경 문화해설사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덕수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문화와 역사를 배제한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열린강좌가 85회에 이르렀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은 쪽 뺨은 직선의 기둥이다. 세련되고 유연한 곡선은 직선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한인니문화연구원을 받쳐주는 안미경 문화해설사의 역할을 평했다.

이틀 뒤, 자카르타 소재 Binus University에서 진행된 안미경 문화해설사의 경복궁 강좌는 비누스 대학교 학장과 학생 140명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앞에서 촬영한 BTS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면서 강의는 마무리되었고 학생들은 여운이 남는 듯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3년 12월 1일~ 2024년 2월 3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 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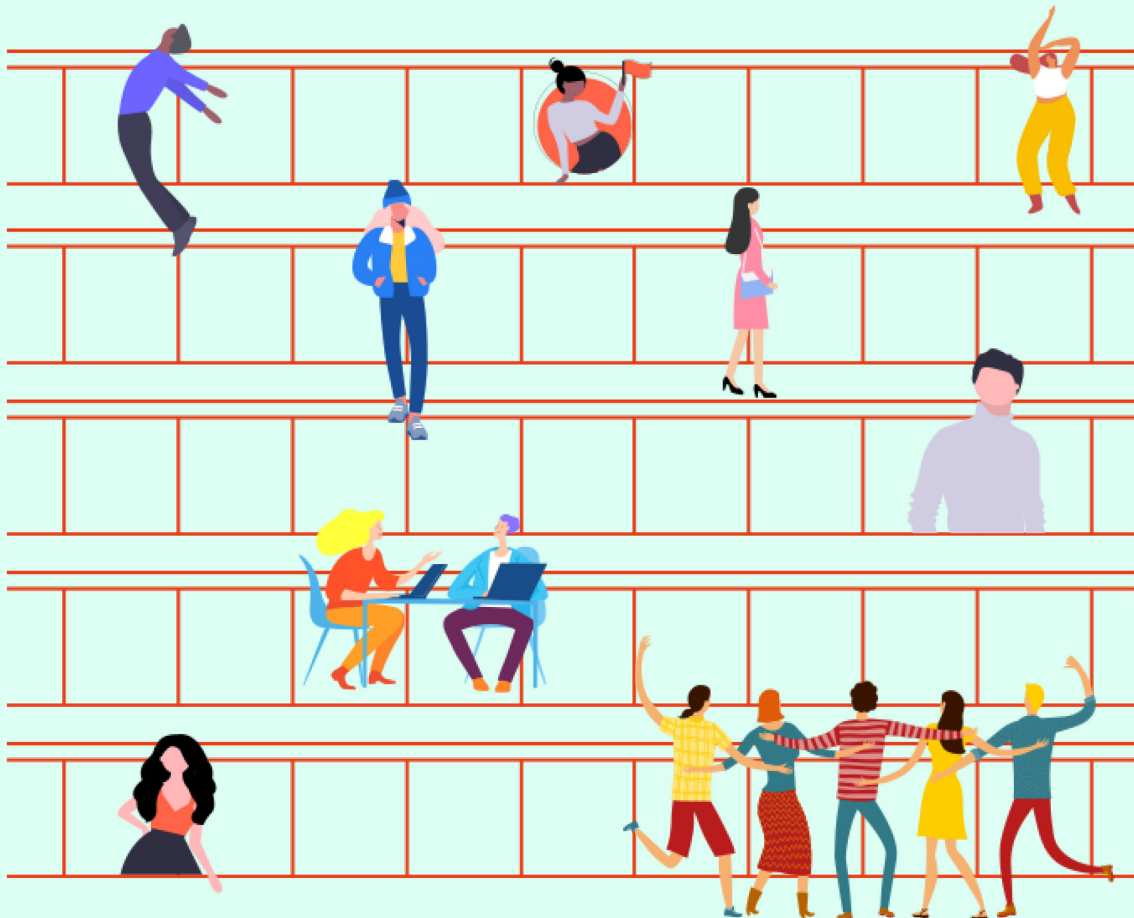
도전하니 청춘이다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12기 학생기자 모집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변호사 이웅



법무법인 새강
LAWFIRM SAEGANG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쫘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남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투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샵)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력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808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뫼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클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분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